

##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윤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임수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북한에서 대학의 역사는 1946년 김일성종합대학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이 설립사를 포함한 북한의 고등교육사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과 그 변화는 그동안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국가 형성 과정의 일환으로서 대학 설립과 그 이후에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소련형 모델의 강화, 1956년 이후 점진적 약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근래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북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대학 설립에 착수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설립에 이르렀는데, 설립 당시 이 대학은 '민족대학'의 정체성을 띠고 있었으나, 1948년 10월, 공대와 의대가 분리 독립하면서 좀 더 뚜렷한 소련형 대학이 되었다. 소련형 고등학술체제는 대학들에 더하여 과학원을 설립함으로써 한층 더 뚜렷하게 되었다. 1956년 북한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1960년대 중소분쟁 상황에서 확립된 주체노선에 따라 소련형 대학 모델은 그것을 구성하는 문화적 내용들이 희석되었으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90년대 초 소련 해체에 따라 탈소련화의 경향이 더 강화되었다.

**주제어** 소련형 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원, 사회과학원

### I. 문제 제기

2016년은 남북한의 수위 대학인 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이 설립 70주년을 맞는 해였다. 서울대학교의 역사는 일제강점기하에서 설립 운영되던 경성제국대학과의 연속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김일성종합대학은 여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소련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형성기의 김일성종합대학은 평양의학전문학교나 대동공업전문학교와 같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유산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널리 알려진 초기의 교수진용 구성과정 때문에 새롭게 설립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북한의 고등교육과 연구는 크게 김일성종합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 대학

들과 과학원, 사회과학원 등의 학술기관에서 수행한다. 북한의 대학 역사는 주지하다시피 1946년에 김일성종합대학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설립사를 포함한 북한의 고등교육사와 관련해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것이 소련의 역할이며, 대학 모델이다. 초기의 북한 대학 설립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던 일본의 제국대학 모델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소련군이 가져왔음직한 소련형 대학 모델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북한의 대학을 연구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질문 중 하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설립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김일성종합대학이 설립된 1946년은 김일성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기는 했지만, 명백히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어떤 학술적 권위도 갖지 않은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최초이자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면서 ‘김일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는가.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은 설립 후 2년 만인 1948년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이 별도의 대학으로 설립되었는데, 그렇다면 1946년의 김일성종합대학과 1948년의 김일성종합대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계적으로 볼 때, 2차대전 종전과 함께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소련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을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소련이 성취한 근대성이 널리 인정되면서, 소련형 사회 모델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태준의 『소련기행(蘇聯紀行)』(1947)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된 소련적 근대성은 고등교육에서의 소련식 모델의 이식과 토착화를 용이하게 했으며, 북한에서도 초기 대학의 설립과 대학 교육내용에 소련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나타내는 선행 연구가 많다(김동규, 1990; 김선호, 1990; 신효숙, 1998). 김동규(1989)의 경우 북한 초기의 고등교육정책을 1949~1950년대, 1953~1956년, 1961~1967년으로 구분해 그 변화를 설명한다. 그러나 소련형 대학 모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이런 시각에서 북한의 대학교육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Kuraev, 2014). 이 글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차적으로 소련의 고등교육, 즉 대학·연구기관의 ‘소련형’ 모델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북한의 대학 설립과 그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소련형 대학 모델의 형성과 해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소련형 대학 모델

원래 소련의 대학은 유럽에서 발전한 대학 모델에 기초하고 있지만, 볼셰비키 정부 수립 이후 사회주의 대학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는 특히 스탈린이 채택한 고등교육정책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볼셰비키는 권력 장악 이후 사회주의 혁명 이상에 입각한 교육정책의 개혁을 단행했다. 혁명 초기의 교육정책은 부르주아 계급의 타파와 공산주의적 인재 양성을 지향한 것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기술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학문적 전통의 쇠퇴를 우려한 많은 지식인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다. 레닌은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에서 고등교육정책을 펼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만(박원용, 1999), 정치적 불안정성과 함께 초기 러시아의 교육정책도 유동적이고 불안정했다.

소련의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된 것은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한 1920년대 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 발전을 위하여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스탈린은 기술교육과 전인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고,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을 통해 공산주의의 사상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노동자 예비학교 등을 신설해 계급적 고려를 고등교육에 반영했다. 1930년대 초반에 고등교육에서의 정치사상화뿐 아니라, ‘전인적 기술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구조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 1939년 대학교육 내 혼재되었던 외국식 교육, 특히 미국식 교육을 완전 제거하고, 이른바 ‘소련형 대학 모델’을 확립했다(김동규, 1989). 제정 러시아의 교육제도로부터 완전한 개혁을 도모한 소련의 고등교육제도는 귀족 또는 부르주아 계급에만 한정되었던 대학교육을 완전 개방했고, 대학을 증설했다. 김동규(1989)에 따르면, 1929~1940년 사이에 소련에서 대학이 148개에서 817개로 증가했다. 1940년 이후 소련의 고등교육제도는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소련형 대학 모델은 2차대전 이후 소련군의 점령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소련형 대학’의 특징 또는 ‘소련형 대학 모델’로서 거론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맥클랜드(McClelland, 1980)는 과학기술과 맑스주의의 강조, 생산현장과 교육의 연계 등을 소련식 대학의 특징으로 지적했다. 팀버레이크(Timberlake,

1980)는 공장의 기술학교 관리, 단과대학별 단일 대학화, 교직원들의 계급적 구성제한(부르주아 계급 축출) 등을 그 특징으로 지적했다. 에트라마 등(Etrama, et al., 2014)은 소련식 대학의 특징으로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분리, 수업내용에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당 역사 교육, 러시아어의 필수화, 고등교육 기관 내 학생구성의 통제(노동자계층과 농민계층 우대), 입학 당시 당 조직원 또는 노동조합원의 추천서 제출의 필수화 등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제시했다. 박원용(2012)은 소련식 교육의 특징으로 노동현장과 교육과의 밀접한 연결, 고등교육기관의 프롤레타리아트화, 교육과 정치화, 노동자 예비학부 등을 들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소련형 대학 모델(또는 소련형 고등교육 모델)은 크게 다섯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기관 내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분리, 둘째, 일반대학과 간부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의 병존, 근로자들을 위한 기능별 대학의 분리 설립, 셋째, 대학기관을 당 산하에 조직하고, 학교와 생산현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 넷째, 인적 구성에서 교직원과 학생의 '성분'에 따라 구성비율을 통제·제한, 다섯째, 교육내용에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맑스-레닌주의의 철학 교육 의무화, 그리고 러시아어 교육의 강조다.

소련형 대학 모델은 유럽의 대학 모델과 비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2차대전 이후 확산된 미국형 대학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식화될 수 있겠지만, 이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 2. 시각과 자료

남한에서 북한의 대학에 관한 연구는 교류 협력의 관점뿐 아니라 통합과 통일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 대학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진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주목하면서, 2015년부터 북한의 대학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북한 대학과의 교류와 협력 경험이 있는 학내외의 연구자들로부터 각 분야별로 이루어진 성과를 점검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수위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북한 대학들의 위계적 편성 외에 공과대학, 농업대학, 의과대학, 사범대학 등 분야별로 북한의 대학 현실을 파악하는 작업이 포함되었다(정근식 편, 2017). 이 과정에서 북한 대학의 위상을 세계적

인 맥락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소련형 대학의 이식과 해체라는 관점을 통해 이를 비교 연구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독일과 중국, 베트남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오늘날 북한 연구에서 부딪치는 한 가지 난점은 북한에서 출간된 공식 자료들의 타당성이다. 이들 자료에는 1960년대 주체사상의 확립 이후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이런 한계는 대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주체사상 확립 전후의 자료들에 대한 대조와 함께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의 소련형 대학체제의 이식에 관한 자료로 김일성종합대학과 과학원의 초기 역사, 즉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자리잡기 이전에 출간되어 비교적 역사적 사실에 가깝게 서술된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1956)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의 연혁(1953~1957)』(1957), 그리고 근래에 출판된 『조선로동당 인텔리정책의 빛나는 력사』(2005)를 비교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대외정책 문서자료(박종효 편역, 2010)를 활용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학을 경험하고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소련형 대학교육의 변화를 파악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 출신 엘리트 14명을 인터뷰했다.

필자가 1995년 7월 카자흐스탄 알마타를 방문했을 때, 1946~1947년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일했던 박일 선생을 만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박일은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초대 총장인 김두봉의 통역 겸 부총장을 역임했다고 증언했다.<sup>1</sup> 1992년 박일 선생을 인터뷰했던 서정목(1992)은 왜 그가 북한에 파견되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일하게 되었는가를 언급하면서, 소련군 사령관이던 슈티코프 중장의 부인이 레닌그라드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 박일이 이 대학에서 함께 수학했기 때문에 그녀가 슈티코프에게 박일을 소개했으며, 박일은 국립 모스크바대학을 모델로 하여 북한에서 대학을 설립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남한에서 그동안 북한 대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그중에서도 북한의 대학을 바라보는 의미 있는 관점의 하나는 남북한

<sup>1</sup> 이와 관련된 녹음자료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사회과학자료원에 소장되어 있다.

의 수위대학인 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을 쌍둥이로 보는 것이었다(김기석, 2001).<sup>2</sup> 특히 남한의 학계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창설기의 교원 구성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서울대학교 교원이거나 졸업생이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초기 국가 형성 과정과 최고 대학의 형성을 매우 긴밀하게 연결시켜 사고해왔다. 그러나 남북한 최고대학의 형성 과정은 이런 국가 형성의 맥락과 함께 서로 다른 이념적 지향과 지식체제를 가진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남한의 대학이 식민지 시기의 일본형 제국대학 모델로부터 미국형 대학 모델로 전환해갔듯이(馬越徹, 2001), 북한의 대학은 그 형성기부터 소련의 모델에 바탕을 두고 구조된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북한 대학의 창설과 변화를 세계적인 맥락에서 다시 바라본다면, 원형으로서의 소련형 대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함께, 1945년 이후 1950년대 시기에 소련형 대학 모델을 받아들인 국가들의 대학의 변화를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II. 북한 고등교육 및 연구체제의 형성

### 1. 북한의 대학 설립과 소련의 영향

북한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학일 뿐만 아니라, 창설 이래 현재까지 북한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의 대학 역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소련형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라는 명제를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우리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역사에서 1946년의 창설과 1948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에 관한 북한의 공식적 설명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하에서 대학이 존재하지 않았던 북한에서 해방과 함께 대학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비교적 일찍 나타났다. 근래의 공식적 역사 서술에 따르면, 1945년 11월 3일, 김일성은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 광주학생운동 16돌 기념집

<sup>2</sup> 그러나 오늘날의 북한의 대학 교수들은 이런 쌍둥이 대학론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다.

회를 앞두고 교육 부문 일군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종합대학을 창설할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했고, 여기에서 종합대학을 먼저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차용현·서광웅, 2005: 110). 김일성은 1946년 초 평양에 종합대학을 세우기 위해 대학건설기성회를 조직하고 자신이 직접 고문을 맡았으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을 때 교육국과 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했고, “우리 인민은…김일성동지의 존함을 종합대학에 모실 것을 정중히 제의했으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그것을 결정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차용현·서광웅, 2005: 114-115). 남한에서 국대안이 발표되자 김일성은 경성대학의 교수들에게 김일성대학 교원위촉장을 8월 16일자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1946년 8월, 종합대학 학생으로 총 응시자 2,000명 중 1,000여 명을 선발했고, 9월에는 계급적 측면을 고려해 “16살부터 25살까지의 혁명가 유자녀들과 근로인민의 아들딸 200명으로 예비과”를 꾸렸다(차용현·서광웅, 2005: 121).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6년 9월 15일 김일성종합대학이 개교했다. 이후 1947년 김일성종합대학 창설 1주년 기념대회에서 이 대학을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을 민족간부로 길러내는 대학”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학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차용현·서광웅, 2005: 119-120).

김일성종합대학이 개교하던 시기에 평양사범대학과 청진교원대학도 개교했다.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과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이 함께 설립되었다는 점은 이들이 민족국가 형성의 일부라는 점을 시사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김기석(2001)은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이 광복 후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민족국가 건설을 기치로 설립된 “일란성 쌍생아”라고 보았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소련군정하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된 조선인 자치조직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건설되었으며, 교수는 대부분 남한 교수를 초빙해 충원했고, 학제와 학문은 민족주의적 기치하에서 구축되었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종합대학 설립 당시 북한 내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제는 많이 부족했으므로, 1946년부터 1948년 초까지 남한,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요원을 초빙하려고 노력했다. 이 기간에 김일성종합대학에 초빙된 교수는 약 20여명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 기간에 북한 내 인재 양성을 위해 1946년 봄 ‘중견간부훈련소’를 설립했는데, 이는 북한 인구 중 일정 인구를 뽑아 2개월간 자연과학과 외국어를 가르친 후 선발시험을 거쳐 유학을 보내기 위한 기구였다. 이들

의 성적이 좋지 못하여 차질을 빚었지만,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420여 명의 유학생을 보냈다(차용현·서광웅, 2005: 129; 윤여령, 2013).

이처럼 근래의 공식적인 서술에서 소련군정의 역할은 누락되어 있는데, 과연 김일성종합대학 설립 과정에서 소련군정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신호숙(1998)은 북한 교육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1945년 11월 발표된 <북조선 학교교육임시조치요강>과<sup>3</sup> 소련군정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 결정에 대한 내용이 한 달 전 소련군정보고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함을 들어 소련이 초기 김일성종합대학의 조직구성과 학생 선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전현수(1995)는 1990년대 초에 비밀 해제된 소련군 문서 연구를 통해 초기 김일성종합대학의 형성 과정에서 소련군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이는 소련군 교육고문 막심츠크(Максимчук)다. 그는 소련군 교육고문으로서, 대학이 설립된 1946년 당시 매일 김일성종합대학에 나와 대학 운영사업 및 교직원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자문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소개했다(김일성종합대학, 1956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인재 부족으로 인해 많은 교수진을 남한에서 활동하는 교수를 초빙해 충당했지만, 이 외에도 소련계 한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 스탈린이 조선이 해방되었으니 나라를 일궈세워라 해서 1946년도에 소련계 한인들을 보냈는데, ... 36명으로 북한에 들어올 때 남일, 방학세 등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고, 박일이 거기에 섞여서 나왔어요. ... (제가 중학교 다닐 때) ... 담임선생도 소련 여자였고, 교사들 여러 명이 소련 사람이었어요. 조선말로 하지만 소련교원들이 거의 다 내용을 채웠다고...<sup>4</sup>

실제로 소련에서 파견된 한인들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까? 1945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128명의 소련국적 한인들이 북한에 입국했는데, 이들

<sup>3</sup> “... 조선 인민의 복리 증진과 문화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 반제 교육에 주력할 것과 쓰련에 관한 지식을 풍부화시키는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편, 1955: 15. 신호숙, 1998: 199 재인용).

<sup>4</sup> 인민경제대학 졸업생, 2016.6.22. 인터뷰.



은 모두 군대에 파견되었다(선즈화, 2017: 166). ‘소련국적 고려인’들에게 북한이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소련 정부에 동의를 요청한 자료(박종효 편역, 2010a: 495-500)에 따르면, 1945년 67명, 1946년 35명, 1947년 14명, 1948년 11명, 1949년 1명 등 총 128명이 명단에 포함되었는데, 이 중에서 교육성과 여러 대학으로 파견된 인원은 16명이었다. 교육성에는 부상 박영빈을 비롯하여 고등교육국장 김동윤, 출판국장 전태선, 초등교육국장 박덕환 등이 파견되었고, 평양교육대학장 허익, 김일성종합대학 러시아언어문학대학장 명월봉, 신의주교육대학장 김하연, 원산교육대학 부학장 리증원, 원산교육대학 러시아어 교수 정정문, 원산농업대학 부학장 김영수 등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종합기술대학에는 부학장 장남익과 자연과학과장 전동인, 러시아어과장 최일을 비롯한 전승철, 리영화 등이 파견되었다.<sup>5</sup> 특히 1945년에 파견된 박영빈, 허익, 명월봉, 장남익, 박형식 등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이다. 이들 16명 외에 중앙간부학교 교장 박형식, 중앙당학교에 교육과장 장주익을 비롯한 5명 등이 이념교육을 위하여 파견되었다. 소련에서 파견한 고려인들은 교육계뿐 아니라 당·정·군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다.

1950년 2월에 이르면, 1945년 해방 이후 소련 정부가 조선에 파견한 고려인 174명에 대한 ‘조선 공민’ 자격 취득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교육성 부상 남일과 고등교육국장 장익환, 출판국장 전태선과 송진화, 김일성대 부총장 김승화, 김일성대 교수 김동윤, 김철수, 명월봉, 심수철, 전승철, 정동인, 정을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외에 종합기술대학, 함흥산업대학, 평양정치대학, 평양 러시아어대학, 원산교육대학, 신의주교육대학, 개성교육대학, 청진교육대학, 평양교육대학, 평양의과대학, 함흥의과대학의 교수들과 정치경제과학 아카데미의 교수들이 포함되었다(박종효 편역, 2010a: 229-453).

막심츠크를 필두로 소련 민정청을 통해 북한의 교육과 문화의 형성 초기에 소련의 영향력은 막대했던 것으로 보인다.<sup>6</sup> 북한의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의 개편안 역시 소련 민정청을 통해 자문과 지도를 통해 수립·정착되었다(신효숙,

<sup>5</sup> 흥미롭게도 이 명단에는 박일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알 수 없다.

<sup>6</sup> “김일성종합대학은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위대한 소련 군대와 소련 인민의 직접적 방조하에서 창설되었으며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우방들과의 광범한 문화적 협조와 원조 밑에서 발전되어 왔다”(김일성종합대학, 1956a).

1998).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역시 “소련군 사령부를 통하여 소련 각 대학의 과정안 교과서, 교재 교수 요강 등을 대학에 제공하여 줌으로써 막대한 도움을 주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초기 북한대학 내 소련의 원조와 영향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김일성종합대학, 1956a: 30). 이에 관한 구체적 근거의 하나로, “김일성과 슈티코프의 요청에 따라, 1948년 2월 18일 소련 고등교육부는 조선에 대한 교학 및 과학 연구분야 원조에 관한 결의문과 협정문 초안을 작성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1948년 조선의 대학에 현금 150만 루블과 실험 기자재 및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23개 전문 분야에 걸쳐 교수 31명과 11명의 번역가를 조선의 대학에 파견하도록 했다.”(선즈화, 2014: 146-147)

소련식 제도가 북한에 이식되는 또 하나의 통로는 소련에 파견되어 훈련을 받은 교수와 유학생들이었다. 1946년부터 청년들이 소련의 대학과 기술학교에서 학습하기 시작했고, 1947년 1회 4개월 과정의 훈련반 30명의 대학교수들이 모스크바에서 교육을 받았다(선즈화, 2017: 175). 1950년까지 소련의 각 대학에서 수학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702명에 달했다(선즈화, 2017: 175).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단독정부의 수립을 통한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은 민족대학의 건설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학 수립 과정을 거쳤지만, 남한의 국립대학이 지명을 따른 ‘국립서울대학교’인 데 반해,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이름을 따라 대학명을 ‘김일성종합대학’으로 결정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가 대학의 명칭을 결정했는지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평양 소재 전문학교인 평양의전과 평양공전을 모태로 형성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초기 명칭은 ‘김일성대학’으로서, 1946년 7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 제40호 <북조선에 종합대학을 설치할 데 관한 결정>을 통해 공포되었다. 이에 관해, 소련군정이 북한을 소비에트화하고 김일성의 권력 장악이 소련의 결정과 후원에 의한 것이라는 서대숙(2000)의 주장이 있다. 또한 소련이 북한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스칼라피노와 이정식(1986)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최초 대학에 ‘김일성’ 명칭을 붙인 것도 소련군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서재진, 2003).

## 2. 북한 정부 수립과 소련의 영향력 확대

1948년 9월, 남북에서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이때의 변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련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종합대학이 아닌 단과대학이 대거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지시하에 김일성종합대학의 공학부와 운수공학부가 분리되어 평양공업대학이 설립되었고,<sup>7</sup> 같은 해, 역시 김일성종합대학 농업부가 분리되어 사리원농업대학,<sup>8</sup> 의학부가 분리되어 평양의학대학이 각각 설립되었다(김동규·김형찬 편, 2000). 1948~1949년 사이에 주요 단과대학들이 계속 설립되었다. ‘종합대학’의 명칭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의학부와 공학부, 그리고 농학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다르다. 즉 1946년의 김일성종합대학과 1948년 이후의 그것은 다른 대학 모델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와 관련하여 1949년까지 설립된 북한 대학의 창립일은 표 1과 같다.

북한에서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되면서, 김일성은 즉시 소련연방과 경제, 군사, 아카데미의 파트너십을 약속하는 11개 조항에 동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Kuraev, 2014: 149-152). 이는 1948년 북한 정부의 공식 출범 직후 북한·소련 지도부가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하고 군사, 경제, 문화 전반에 관한 원조를 받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1949년 3월 5일 김일성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스탈린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대학에서 강의할 소련의 학자를 파견해주고 조선의 학생을 소련에 유학시켜 전문가들을 소련에서 연수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소련의 교육 프로그램과 도서를 조선에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교류 확대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박종효 편역, 2010a. 310). 이 회담의 성과로 양국의 경제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많은 양의 소련 문서가 북한에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 학자들도 김일성종합대학의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 학술계 인사들의 대외 인적교류는 소련을 중심으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

<sup>7</sup> 평양공업대학은 1951년 김책공업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는 현재까지 북한 최고의 과학 기술 교육기구로서 자리하고 있다.

<sup>8</sup> 6.25전쟁 이전에 원산으로 이전해, 현재의 원산농업대학으로 대학명이 변경되었다. 사리원농업대학은 1959년 재설립되어, 2010년 김일성종합대학에 다시 병합되었다.

표 1 북한의 초기 15개 대학 일람표(1949)

대학 유형	대학명	창립일
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1946.10.1
공업대학	평양공업대학	1948.9.27
	홍남공업대학	1947.9.15
농업대학	원산농업대학	1948.9.1
의학대학	평양의학대학	1948.9.28
	함흥의과대학	1946.10.15
	청진외과대학	1948.9.1
사범대학 교원대학	평양사범대학	1946.10.1
	청진교원대학	1946.10.1
	신의주교원대학	1947.10.10
	해주교원대학	1948.10.5
	원산교원대학	1949.10.15
외국어대학	평양로어대학	1949.11.15
예능대학	국립음악학교	1949.3.1
	국립미술학교	1949.9.16

출처: 김동규·김형찬 편(2000: 124-125).

표 2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인 초빙 교수(1949-1950)

No	이름	학과목
1	이고리 베스도로비취 아베르꼬-안또노비취	무기화학
2	도보로진	수리물리
3	깜네브 이완 옐밀리아노비취	다원주의기본
4	루다쉐브스끼 쎬몬 예브게니비취	인체 및 동물 생리학
5	데멘제브	자연지리원론·지형학 및 지리학사
6	자위도비취	인민경제 계획화
7	베스빠리	상품학
8	황보청	중국 문학사

출처: 김일성종합대학(1956: 135-136).

어졌다. 1950년 4월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소련 외무성에 국제관계대학 교과과정 자료를 요청하여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의 자료를 받았다(박종효 편역, 2010a: 467).

맑스-레닌주의와 같은 철학교육을 위해 소련에서 직접 고문이 파견되어 변증법적 유물론 등을 가르치는 한편, 소련과의 교류를 고려하여 러시아어 교육을

집중 실시했다.<sup>9</sup>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는 당시 소련에서 추뵈로브, 빵끄라포브(맑스-레닌주의), 레베제브(변증법적 유물론), 뤼샤코브(러시아어), 차스뚜힌(세계사), 오사지코(정치경제학), 까텐쓰까야(지리학), 프라후킨(화학), 자마라예브, 비노그라도브(생물·동물학), 씨부힌, 파라소브, 싸노브(물리 수학) 등의 학자를 파견했다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1956a: 59-63). 그러나 1949년 북한으로 파견된 김일성종합대학의 소련고문들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곧바로 소련으로 돌아갔다. 전쟁 이후 김일성종합대학에 계속해서 머무른 소련 및 중국 교수들은 불과 9명밖에 없었다.

과학 부문과 관련해서도, 소련에서 몇 개 그룹의 과학자가 북한에 파견되었고, 북한은 다수의 유학생을 소련연방의 대학으로 파견하여 선진교육을 수학하도록 했다.<sup>10</sup> 이는 실제 수치상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는데, 1950년 170명을 비롯하여(박종효 편역, 2010a: 445),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소련연방의 과학기술 중심 고등교육기관으로 북한유학생 500명 이상이 파견되었다(Okorokov, 2008). 이를 제1차 유학생 파견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해방 후 대학교를 세웠는데 교수들이 모자라니까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고려인들을 몇 명 데리고 오고, 서울에서 많이 데리고 가고, ... 혼잡(을) 이루다가 1950년도에 소련에 유학생을 보내고 그들이 대거 돌아와서 대학을 만들어갔는데, 소련 것을 그대로 모방했어요. ... 소련뿐 아니라 1950년대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즉 체코, 동독 등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주로 공대는 동독과 체코, 러시아 이렇게 ... (갠어요). 내가 배운 선생들은 레닌그라드 출신도 있고, 모스크바종합대학 출신도 있고, ...<sup>11</sup>

소련에 파견했던 1차 소련 유학생들이 귀국하고, 6.25전쟁 과정에서 월북한

<sup>9</sup>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에 따르면, 1947년 전체 교원 중 러시아어 구사자가 30%에 불과한 반면, 1949년에 이르러 전체 교원의 90% 이상이 러시아어를 읽고 쓸 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김일성종합대학, 1956a: 46).

<sup>10</sup> 황장엽의 회고(2006: 100-117)에 따르면,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원 1학년 재학 중에 수련 유학생으로 추천되어 1949년 10월, 평양을 떠나 모스크바종합대학 철학연구원에 입학했고, 1953년 11월, 평양으로 귀환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철학강좌장으로 승진 배치되었다.

<sup>11</sup> 김책공대 졸업생, 2016.8.10. 인터뷰.

남한 학자 다수가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에 편입되면서 대학의 규모가 확대되었다(김일성종합대학, 1956a).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젊은 유학과 교수들은 당시로서는 소련에서 습득한 최신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교육내용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데, 그만큼 소련형 대학 모델은 강화되었다.

북한은 광복 후뿐만 아니라 6.25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소련의 당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으며(박종효 편역, 2010a: 543-544), 전후에도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많은 도서를 기증받았다. 이 도서들은 대부분 소련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핵심 통로였다. 소련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해·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원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러시아어 공부도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1954~1955학년도부터 러시아어 원서를 교재로 선택하고 러시아어의 구조와 조현어를 대비 연구하며, 대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교수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김일성종합대학, 1956a).

북한은 간부 양성을 위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유학생을 대거 파견했다. 소련과 동유럽, 중공, 쿠바 등에서 교육받은 7,000명 외에도 약 25만 명이 중학교와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형수, 2015). 소련과 쿠바로 정치학을 공부하기 위해 파견된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들 졸업생 대부분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교육받았다(김정원, 1992). 김일성종합대학 설립 이후 여기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들로는 중국, 루마니아 및 몽골에서 온 유학생 9명이 있었으며,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6년 9월 말 중국 10명, 루마니아 4명, 몽골 7명, 소련 대학에서 온 장기 실습생 1명, 그중 12명은 어문학부에서, 5명은 역사학부에서 수업을 받았다.

이와 함께 중요한 사실은 전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부에 국가적 투자를 집중하고 일찍부터 원자력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56년에는 북한의 핵융합연구소의 김현복 등 3명이 소련에 파견되었다. 이것은 이후 북한의 “주체” 노선이 형성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 이후의 정책으로 계승되었다.

### 3. 과학원 설립

소련형 지식체제의 도입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은 교육기구뿐 아니라 최고 연구기관으로서의 과학원 설립을 통해 좀 더 공고화된다. 북한의 과학원은 전쟁이 끝나기 전인 1952년 설립되었다. 1952년 4월 열린 <과학자대회>에서 김일성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중앙기관으로서 과학원 조직을 제시했다. 당시 과학원 조직에 대한 약간의 논란은 있었으나, 12월 1일 과학원 설립이 최종적으로 선포되었다(차용현·서광용, 2005: 184). 김일성은 1952년 12월 과학원 개원식에서 과학원은 “과학, 문화의 연구 사업을 한층 더 조직적으로 강화하며 소비에트 동맹을 위시한 인류의 선진 과학을 섭취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도할 기관”으로서 기관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했다(과학원, 1957).

원래 북한에서 과학원의 모체로 1947년 설립된 북조선중앙연구소가 있었으나, 인력과 물자, 자원 등의 부족으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편입되었고(강호제, 2001), 소련의 지원으로 비로소 안정적인 기관으로서 과학원이 설립될 수 있었다. 과학원 설립에 있어 소련의 많은 학술적이며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초기 과학원에 임명된 학자 25명(원사 10명, 후보원사 15)의 명단을 보면, 전쟁 이후 남한에서 대규모로 월북한 과학자들로 인해 과학원 설립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2년 당시 과학기술계 원사로 선출된 학자는 최삼열, 김지정, 리승기, 도상록, 최명학, 계응상인데, 이들 6명 중 최명학을 제외한 5명은 남한 출신의 월북학자였다(김용섭, 2005).

과학원은 자연기술과학, 농학 및 의학, 사회과학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조직되었는데, 자연기술과학 부문에는 물리수학연구소, 화학연구소, 공학연구소가 산하에 조직되었고, 농학 및 의학 부문에는 농학연구소와 의학연구소를 산하에 설치했다. 사회과학 부문은 경제를 복구하고, 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법학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조선언어문학연구소가 설치되었다. 각 연구소는 평양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서들만 평양에 유지하고 평남 순천, 평양 지구, 평북 피현, 의주, 정주 지구, 평북 청수 지구 등으로 분산 설치하고, 본부는 평양 모란봉 국립중앙박물관의 지하 사무실을 사용했다(과학원, 1957: 18-19). 도서와 같은 기반 자료는 소련, 중

국, 헝가리, 알바니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조달받았다.

과학원의 발전에 있어 해외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했는데, 6.25전쟁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소련뿐 아니라 중국과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과학원에서 발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의 연혁(1953~1957)』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있다.

과학원은 창립 이후 소련 및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형제 국가들과 과학적 및 문화적 관계를 확대 공고히 할 데 대한 사업을 자기 활동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인정하고 일련의 사업들을 적지 않게 조직 전개했다. 특히 이 사업은 조선에서 정전이 달성된 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정전 직후인 1953년도 3.4분기만 하여도 평양과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과학원 및 과학자들과의 령계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과학원, 1957: 57-59)

특히 1953년 12월 16일부터 1954년 4월 14일까지 소련연방의 과학원들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소련 과학원 및 헝가리 과학원 등을 방문·견학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1955년에는 독일 과학원에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3개월간 독일의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들을 참관하도록 했다. 이러한 교류는 1956년 7월 30일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과학연구 10개년 전망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층 더 활발해졌는데, 소련과학원 상무위원회를 통해 2차에 걸쳐 전문가가 북한에 파견되었다. 1차로는 화학 전문가와 역사 전문가 등이 구성되어 2개월 동안 과학원에 파견되었고, 2차로는 물리학자를 중심으로 1개월 동안 과학원에서 생활했다. 이와 같은 과학원과 소련과의 긴밀한 교류는 소련에서의 수정주의 노선의 대두와 북한의 반종파투쟁을 기점으로 1957년 이후 축소되기 시작하지만,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1957년 10월 11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1958년 소련 아카데미와 북한의 과학원 간의 학술연구를 계속하기로 했다(박종효 편역, 2010b: 121). 1958년 7월 16일 조·소 우호협회도 신설되었다.<sup>12</sup>

<sup>12</sup> 이 협회는 창립 직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71년 제3차 대회를 열었다.



### III. 소련형 모델의 희석화

#### 1. 소련파 숙청과 그 영향

1950년대 중반에 출판된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나 『(김일성종합대학 창립10주년 기념)논문집』 등 북한의 학술문헌을 살펴보면, 소련을 해방자로 칭송하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 국제주의 관점에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흐름이 변화하는 최초의 계기는 1956년에 발생한 이른바 ‘8월종파’ 사건이었다.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열린 1956년 2월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의 일인 집권을 비판한 흐루시초프가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자, 북한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김용서, 2012). 이에 따라 북한 정부와 당은 소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그 일환으로 러시아어 외국어대학을 폐쇄하고, 학생들을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옮겼으며, 모든 대학의 러시아어 수업 시간을 줄였다. 또한 대학 4~5학년의 러시아어 수업은 금지시켰다(선즈화, 2017: 447). 이어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당국은 소련의 신노선을 따르지 않을 것을 공포하고, 8월 전원회의를 계기로 김일성의 개인숭배, 독재정치에 비판적이던 연안파·소련파를 중심한 비판세력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로 몰아 대거 숙청한 ‘8월 종파사건’이 일어난다. 이들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거부’했다는 죄목이었다. 소련대사로 일했던 이상조를 소환하자 그는 소련에 망명했고, 소련에 유학하던 유학생들이 상당수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사상검열운동이 시작되어 김일성종합대학 당위원회 위원장 홍낙웅(홍광)이 중국으로 도피했고, 상당수의 대학교수들이 비밀리에 연행되었다(선즈화, 2017: 485). 1956년 말 출판된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를 보면, 교조주의와 형식주의 퇴치 운동이 이미 진행되었음이 나타난다. 이 시기부터 주체의 확립·강화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있어서는 매개 과목에서 조선 현실에 대한 이론적 일반화가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가, 소련 기타의 외국교과서와 문헌들이 리용에 있어서 교조주의적 이식이 없는가,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게 택짜야 단위 강의안으로 작성되었는가 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집체적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 결과에 조선 관계전문 과목들에 있어서까지도 종전에는 소련에서의 제 현상과 그에 기초한 이론적 명제들을 주로 서술하고 조선의 현실문제는 간략히 언급하던 실례가 적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는 강의의 전 체계가 완전히 조선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자체의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1956a: 131)

북한 당국은 1956년 10월에 발생한 헝가리반정부사건을 ‘반혁명음모사건’으로 비난하면서 이를 정치적 반대파들을 탄압할 명분으로 이용했으며, 헝가리사건에 대한 정치적 중립 선언으로 소련이 북한에 개입할 구실을 미리 봉쇄했다(교봉기 외, 1989).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은 최창익의 ‘대본영’으로 간주되어 심한 탄압을 받았는데, 교장 유성훈, 역사학과 주임 김정도와 일부 교원들이 숙청되었다(Lankov, 2005: 148-149; 선즈화, 2017: 513). 김일성은 중·소 간 이데올로기 대립을 이용하여 소련파와 연안파를 비롯한 당내 파벌을 숙청하고 빨치산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재편성에 성공했다. 이 과정은 소련의 사상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체의 지도체계를 세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불세비키 당사』의 번역본을 그대로 암기하는 등의 소련중심적 교육과 학습 방식이 사라지고(신인철, 1987), 맑스-레닌주의 철학에 대한 강조를 철회했으며, 1960년대 들어서는 대대적인 사상교육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1960년대 초에 이루어진 흐루시초프의 “정치적 완화(political thaw)” 이후로 모스크바대학은 해외 대학과의 국제적 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었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모스크바대학 등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은 증가했다(Kuraev, 2014). 이런 소련의 사정과 반대로, 북한 내부에서는 1953년 전쟁 이후의 불안감과 스탈린 사후 소련의 스탈린 격하운동의 반감에 따른 김일성 정권의 안정적 구축과 강화를 위해, 해외세력을 강력히 숙청하게 된다. 1956년 종파사건 이후 소련파를 숙청하게 되며, 북한에서는 유학생의 소련 파견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좀 더 강화한다.

… 북한에서 총 두 번에 걸쳐 대대적으로 유학생들을 보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보냈다가 58년도에 소환(했어요) … 유학생들이 도망가는 사건이 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학생 정책을 바꾸었는데, 그러나 유학생들을 간부로 등용은 많이 하고

학자로 배치도 했어요.

… 1956년 종파사건 때 (소련에서 유학한)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 때문에 내가 유학생으로 선정되자 나중에 내가 피해 입을까봐 나를 유학생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sup>13</sup>

… 소련의 각종 교과서나 인쇄물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8년도라고 생각되는데 이때 당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말이 나왔어요.<sup>14</sup>

당시 김일성은 기술인재 양성을 전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경우 교원들의 책임성과 독자성, 창발성이 저하될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대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와 판단하에 북한 자체의 기술인재 양성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다(김일성, 1953). 이는 가장 먼저 해외 유학생 파견 감축으로 나타났는데 1957년부터 유학생 파견 숫자를 대폭 감축, 1958년부터는 대학졸업자에 한하여 필요한 분야만 소수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1960년부터는 유학생 파견을 전면 중단했다(신효숙, 2005).

사상문화 분야에서도 “혁명전통교양 강화, 당적 사상체계 확립, 도식주의, 기록주의, 사회학적 비속화, 자연주의, 형식주의 잔재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전반적 창조적 양양에 고상한 사상성과 예술성을 보장”하도록 했다(연장렬, 1960).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과학에서 주체를 확립하자”라는 주장이 본격화되며 문학, 언어, 경제 등 다른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1959년부터 전 사회적으로 ‘천리마운동’을 전개하고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증설했다. 이에 청진광산대학을 비롯하여 15개의 대학이 신설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은 대학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기관으로 활용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대학 교원들에게 단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수법을 가르치고 학사과정과 학사운영에 대한 모범을 제공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1970년에는 ‘천

<sup>13</sup> 인민경제대학 외 졸업, 2016.6.22. 인터뷰.

<sup>14</sup>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2016.7.11. 인터뷰

리마대학'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공산주의 개조가 끝나고 공산주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진행된 이후 시기”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중반기에 “유일한 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는 구호 아래 “주체적 공산주의 교육학의 새로운 장을 펼쳤으며, 인텔리 혁명하의 앞장에 섰다”고 주장한다. 그때부터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주체적 이데올로기 교육을 더욱 더 강조했다.

## 2. 1960년대 주체 · 유일지도체제 확립과 강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기초 건설과 전면적인 공업화를 추진하며 주민의 지식 ·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한 독자적 정치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남북간 대치 상황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북한의 독특한 역사 경험과 사회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회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소련의 지속적인 대국주의적 내정간섭과 남한의 위협과 같은 위협요소에 대비하여 북한은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노선과 통일을 명분으로 하는 ‘민족해방,’ 즉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빨치산 역사, 김일성의 역사를 혁명전통으로 규정하고 정권의 정통기반으로 다져나갔다.

1950년대 말부터 북한의 노동당 서기실에서는 김일성의 모든 연설에 들어 있던 스탈린 이상화와 스탈린주의적 요소를 전면 삭제하고 문장을 고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1961년 노동당 제4차 대회 이후부터 문건에서 주체 문제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황장엽, 1999: 131).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국경과 사상이 없다는 교육사상에서의 ‘초이념성’이 오히려 부르주아 사상, 생활양식에 대한 자유로운 침투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경계했다(사회과학원, 1975: 31). 1963년 북한주재 소련대사는 북한에 약 350~400명의 소련인이 체류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박종효 편역, 2010b: 258). 1956년 9월 5일 체결된 조·소 문화협력조약, 1957년 10월 11일 체결된 조·소 학술원 협력조약에 따라 1960년대 중반기에는 협력이 유지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박종효 편역, 2010b: 266-268). 1966년에는 한국

국교정상화에 따른 북한의 국방비 지출 증가가 해외교류에 필요한 재정의 축소의 명분으로 활용되었다(박종효 편역, 2010b: 300).

1960년대 들어서면서 김일성의 교시나 문헌들에서는 소련을 찬양하는 문구가 사라지고 ‘소련’이란 직접적 언급은 피하고, ‘대국주의’와 같은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되며 이론적 반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얼마나 오만하고 깔보는 태도인가! 이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거만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상식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말들은 대국패권주의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 패권주의자들은 그들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명령할 자격이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무식하고 그들만이 다 알고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길들어 있다. (노동신문, 1964)

북한은 또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분업체제를 비판하면서 ‘경제적 예측은 정치적 예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강조했다.

우리들은 결코 국가 간의 경제적 협력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는 고립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제가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제협력’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미명 아래 다른 나라의 경제를 지배하려는 경향, 바로 이와 같은 대국 패권주의적 경향이다. 우리는 자립적인 국민경제의 기초 위에서만이 진정한 국제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일성, 1965)

북한은 소련으로부터의 정치, 경제, 문화, 이념적 독립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주체성에 기초한 내부적 역량이 견고할 때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해야 외세에 종속될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각 나라의 혁명 지도력은 그 나라의 당과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혁명은 수출될 수도, 수입될 수도 없다. 각 나라의 혁명은 세계혁명과의 관련 속에서만 완전하게 수행될 수 있고, 또 국제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혁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부적 요인이다. 외부의 지원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오직 부차적인

역할만 할 뿐이다. ... 혁명과 건설을 완수함에 있어서 국가는 첫 번째 중점을 그 자신의 내부역량 강화에 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한다. 비록 외부의 원조가 어떤 국가에 주어지더라도 그 국가의 지도력이 확립되었을 때에만 효과가 있다. 공산주의자와 로동당의 상호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주권의 원리, 상호존중, 내부분제에 대한 불간섭 및 동지적인 협조에 기초해야 한다. (『노동신문』, 1966)

소련의 강력한 후원하에 수립된 북한정권으로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소련문화의 영향력을 단절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이 필요했다. ‘주체’는 이런 필요성에 부합하는 핵심 개념이었다. 1960년대 등장한 북한의 주체사상에 근거한 자주노선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소련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고자 대외적으로 소련의 대국주의를 견제하는 자주노선을 견지하는 반면, 사회 분야에서 소련적인 것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고자 했다. 소련군이 지원하고, 또는 자신들이 사들였던 도서, 영화를 비롯한 소련의 문물을 모조리 소각하는 ‘주체의 바람’을 일으켰다.

흐루시초프가 올라왔고 나서 스탈린 동상을 없애고 레닌 묘에서 레닌 시신 꺼내버리고, 1962년도에 평양 온다고 하다가 결국 안 왔다고. 소련이 수정주의 할 때부터 김일성과 흐루시초프가 사이 틀어져서. 김일성은 스탈린이라면 하느님처럼 여기지만, 흐루시초프 정책에 대해서는 강연회 때마다 수정주의를 비판하고, 1962~65년도까지 소련의 문화예술 서적은 모조리 없애라 하고, 기술 서적까지 다 검토보고 소련 정책적인 거 있으면 없애라 했어요. 내가 해군대학 다닐 때 기술 서적은 웬만하면 안 없었지만, 다른 책은 다 없었어요.<sup>15</sup>

1960년대에 일어난 학계의 중요한 변화는 과학원에서 사회과학원이 분리된 것이다(염인택 편, 1980). 사회과학원은 북한 최대의 인문·사회과학 종합 연구기관 중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1964년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사회과학부문 연

<sup>15</sup> 인민경제대학 외 졸업, 2016.6.22. 인터뷰.

구기관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기관”으로 출발했다. 사회과학원은 국립 과학원 산하 국립 연구기관으로서, 주체사상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철학연구소, 경제연구소, 법학연구소, 언어학연구소, 문학연구소, 고고학연구소, 고전연구소 등을 산하에 두었다(염인택 편, 1980). 사회과학원 산하의 각 연구소는 『역사과학』, 『경제연구』, 『문학연구』, 『고전민속』 등 다양한 기관지를 출판했다.

북한의 대학이 소련식 모델을 탈피하는 두 번째의 결정적 계기는 1967년 조선로동당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5·25교시다(안성호, 2015; 오경숙, 2004). 5·25교시는 북한의 대학사를 넘어서서 사회문화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956년 8월 종파 사건으로 촉발된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가 10여 년 만에 완성됐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당시 조선로동당이 자본주의, 수정주의, 교조주의 등 잡다한 사상이 당에 유입되어 있어서 혁명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일소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소련의 우경 수정주의와 중국의 좌경 모험주의를 모두 반대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계기로 극에 달하던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숭배의 풍조는 김일성의 개인숭배 실현에 바람을 달아준 격이 되었다. 1967년 5월 25일 김일성교시는 북한사회를 특이한 형태의 권력구조를 가진 곳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북한에서 전 인민이 김일성 배지를 달도록 강요당한 것도 이때부터였다(황장엽, 2006: 179-180).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가 제거된 공간은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더욱 증폭된 형태로 차지하게 되었으며 스탈린주의 대신에 주체사상이 이념공간을 메우면서 정치사상적 독재가 강화되었다(황장엽, 1999: 133-134).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의 빨치산투쟁 역사를 유일한 혁명전통으로 규정하고 김일성독재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 사상,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스며들었던 소련적인 것을 제거하는 동시에 민족해방운동사, 유교적 전통, 향토사 같은 민족역사적인 것까지 말살하기 시작했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이 김일성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1960년대 들어서 노동당 4기 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또 다시 진행된 갑산파 및 일부 항일빨치산 출신들 숙청은 김정일이 주도한 것이었다. 1956년 종파숙청의 구실이 ‘반정부음모’였다면, 5·25교시를 통한 숙청은 개인

의 역사와 업적을 내세우거나, 사상과 관련 없는 외국사조, 『목민심서』를 비롯한 실학과 책 독서 금지, 향토계, ‘비석계’를 비롯한 전통적 모임과 가문의 족보를 비롯한 봉건적 잔재 청산이라는 맥락에서 진행되었다(김정일, 1967). 그러나 북한 문헌들은 1967년의 5·25교시에 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북한의 인텔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차용현·서광웅(2005)도 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5·25교시 같은 중요한 내용은 다 빼고 꺾테기만 있는 게 지금 김일성 선집이다. 내 고향, 내 마을 가꾸기가 남한의 새마을운동 같은 건데 1967년 5·25교시 이후 6개월간 소련의 여독을 뿌리 뽑는다고 온 학교가 사상투쟁하고 그랬다. 1958년도부터 소련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60년대 초반까지 중국물이 빠진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에서 소련 노래와 러시아 음악이 매우 보편적이었는데, 5·25교시 후 토요일마다 소련 영화 보던 게 없어지고 빨치산 회상기나 김일성선집을 공부하고, 국제관계대학에서 소련식 무용교습도 사라지고, 러시아학과는 유지되었지만, 러시아식 날라리풍이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1990년대에 중국어과가 커지고 러시아학과가 작아지고, 그때는 제1외국어가 로어였는데, 50~70대 되는 사람들은 로어를 배웠고, 나도 학원에서 로어를 배웠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영어와 중국어가 차지한다. 평양 외국어대학도 5·25교시에 따라 외국 물을 뺀다면서 소련 책들을 불사르기 하는데, 그 이후 향일빨치산회상기를 공부하고, 영어나 불어로 된 거로 공부했다.<sup>16</sup>

그러나 1968년 판 『조선중앙년감』에 “김일성동지께서 당사상사업부문 일군 앞”에서 “당면한 당선전사업방향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고,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혜량의 회고록 『등나무집』(2000)에도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1967년 조선노동당 1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5·25교시 전까지 북한은 “사회주의 인민의 나라”였다(성혜량, 2000: 312). 그러나 5·25교시를 계기로 정치사회적 질서와 문화가 철저하게 변화하고, 수령 우상화와 인텔리의 혁명화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반에 극좌적인 바람이 불었다고 증언한다. 5·25교시는 정치적으로, 김일성의 중공업우선정책에 반발하여 경공업우선정책을 주장

<sup>16</sup> 평양외국어대학 졸업, 2016.9.23. 인터뷰.



한 갑산파들을 숙청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1967년 상반기부터 1968년까지 진행된 갑산파 숙청사업은 1968년 중순경에 중견 지방간부직의 약 3분의 2를 공식적으로 만들 정도로 대규모였다. 당시 20대였던 김정일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하면서 숙청을 대규모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했다. 장해성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 숙청된 갑산파의 주역이었던 박금철은 함경북도 하성 수용소로 끌려간 뒤 자살을 했다.

도서정리사업은 이런 5·25교시를 실천하는 사상 정화 캠페인이었다. 성혜랑의 회고에 따르면, 5·25교시는 북한의 정치사회적 질서뿐 아니라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5·25교시에 따라 전국의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책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다. 소련에서 유입된 책이나 음반, 판소리를 포함한 전통문화도 사라졌다. 도서정리는 모든 책을 폐기대상과 제한이용으로 구분했는데, 구분의 기준은 수령 우상화, 항일무장투쟁의 절대화, 계급혁명, 즉 반수정주의, 반부르주아 문화였다. 이에 크게 어긋나는 책은 폐기처분되었고, 제한이용의 경우 저축되는 내용과 어투, 인명을 먹으로 칠하거나 페이지를 뜯어내거나 종이딱지를 붙여 삭제했다. 대부분의 양서들은 제지공장으로 실려나가 폐기되었다.

5·25교시는 음악과 미술에도 적용되었다. 외국 음악은 소련 노래까지도 금지되었으며 고전악보는 모두 불살랐다. 석고 조각들은 모두 깨졌고, 서양화는 파괴되었다. 이 무렵 민족예술극장도 해산되었다. 반 수정주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적용되었다. 외국기술 도입은 수정주의로 몰려 중단되었고, 선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조차 비판을 받았다. 도서정리사업은 북한에 반수정주의의 열풍을 몰고와 지식인들이 향유하고 있던 소련식 문화를 일소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북한 현대사 왜곡의 기초를 만들었다. 이에 관해 황장엽(1999)은 김일성의 도서정리사업은 실질적으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모방했다고 주장한다.

1950년대~1960년대 숙청된 세력의 절대다수가 소련파 지식인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1967년의 5·25교시는 북한의 대학이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인 동시에 김일성의 독재체제에 대항하여 북한사회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인들이 세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수령주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고 정치사상성만 강조하는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사회로 경도되기 시작했다.

### 3. 1970년대 북한의 대학 변화

북한은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를 통해 맑스-레닌주의를 변형·적용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모든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선포하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했다(김정일, 1979). 북한은 1972년 9월 17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대표단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성문화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19일 김일성의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노동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했다.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북한의 현실에 맞게 적용한 노선과 정책의 독자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본질적으로는 수령 독재기반을 강화하고 대국들의 내정간섭을 반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대국주의에 맞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우선이고 그러자면 과학기술 발전이 절실한 목표였다. 1971년 소련의 아카데미와 북한의 과학원 간의 교류 및 고등교육성 간의 교류가 재개되었다. 이때부터 대학 간 교류는 김일성대학과 모스크바 국립대학, 김책종합기술대학과 레닌그라드 종합기술대학, 건설전자재대학과 모스크바 건축대학, 평양의과대학과 모스크바 제1의과대학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박종효 편역, 2010b: 404).

아울러 1970년대 들어 “총련”을 통해 일본의 발전된 기계공학, 전자공학기술을 도입하고자 재일본조선인과학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김일성, 1972b). 북한이 6개년 계획기간에 “100만의 인테리 대군을 양성할 데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과학기술 발전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대주의를 중국적으로 뿌리 뽑자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김일성, 1972a). 대학교육에서 『자본론』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정치경제학,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과 같은 맑스-레닌주의 일반원리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북한식 교육학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철저히 제거하도록 했다(김일성, 1971).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주체철학을 강조하는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다. 1975년 사회과학원의 각 연구소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기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각종 연구저작을 출판했다(사회과학원, 1975). 그뿐만 아니라 1974년부터 1976년까지 2년에 걸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노작해설문고”

시리즈를 발간하며 주체철학에 근거한 김일성의 정책에 대한 정책해설집도 출판했다(염인덕 편, 1980). 이와 같이 사회과학원을 통한 활발한 사상 이론의 확립사업을 통해 북한의 전반적인 인문·사회과학의 모든 논거의 근거를 김일성으로부터 찾고, 이를 학문화·이론화했다. 이러한 이론사업은 학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및 사회 전반적인 운영의 근거를 확보하고 마련하는 북한 특유의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었다.

과학 분야에서 수정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던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자연과학 기술에는 수정주의가 없으니 외국 기술서적을 많이 번역하여 대학교육에 받아들일 것을 장려했다. 번역기관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대학 교원들과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서적을 번역 출판하되 그 수가 10만여 권 이상 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산지식’을 강조하며, 대학교육이 실제 생활에 직접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김일성, 1973).

이와 함께 북한은 1970년대에 아프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그 나라들의 지도적 역할을 자처했다. 신생독립국가들이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해방 직후 민족간부가 없어서 애타던 경험을 생각해서라도 신생독립국가들에 기술자들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일성, 1972: 118). 이때부터 북한의 대학졸업생들은, 광복 후 소련 고문들이 북한의 국가건설 분야와 대학들에 파견되어왔던 것처럼,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 농업대표단, 기술대표단을 고문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5·25교시와 이에 따른 도서정리사업은 이후 1974년 4월 14일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sup>17</sup> 선포로 귀결되었다.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서 작성된 10대 원칙의 제10조에 “대를 이어”라는 표현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김정일의 권력투쟁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sup>17</sup> 이 원칙은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을 위한 10대원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IV. 1980년대 유학생정책과 소련 해체의 충격

### 1. 1980년대 유학생정책

북한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서구 선진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주체의 확립’을 통한 ‘주체사상’의 ‘전지전능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의 원리나 합리적 근거를 확보 하지 못한 북한의 과학교육은 폐쇄적 공간에 갇혀 있음을 북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과학교육의 정치사상화로 인한 과학기술의 선진성 부족, 폐쇄적 과학 연구, 생산성에만 집중한 과학 발전에 대한 편향적 요구, 국방과학 기술에만 집중적으로 가한 불균형 투자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었다.

1980년대 들어 북한은 전문적인 응용과학보다 인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적인 기초과학에 투자를 집중해왔지만 점차 그 한계를 인식하고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대외 교류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국 및 소련의 발전된 기술을 주체적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과학기술의 세계 추세 변화에 따라 영재교육, 대외 과학기술 교류, 과학기술자 우대 등을 중시하는 ‘과학기술시대’를 공포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일반학교와 차별화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분리 교육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들은 졸업 후 대부분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평성리과대학 등에 진학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자연과학학부는 북한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한 통로였다(김정일, 1984).

1980년대 북한의 유학생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84년 김일성의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방문이었다. 김일성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방문을 통해 동유럽 과학기술의 발전된 면모를 보았고, 해당 국가 및 당 지도자들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자 힘썼다(김일성, 1986). 1960년대 5·25교시를 통한 도서정리사업을 통한 해외 서적에 대한 그동안의 단속 역시, 1984년 김일성의 유럽 순방과 함께 완화되어 북한 내 외국서적의 출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당시 해당 국가들에 파견된 유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이를 북한의 언론매체에 공개함

으로써, 유학생정책의 중요성을 국가 전반적으로 홍보했다. 소련과 동유럽으로의 과학자들의 해외연수 및 관련 외국어 공부를 장려하고, 유학생들을 소련과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 활발히 파견했다.

우리가 2학년 때(1987년) 매 학급에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유학을 보냈다. 한 학급에서 서너 명씩 갔다. 석사까지는 유학을 많이 보냈는데, 다만 박사는 국내에서 하라는 정책을 취했다.<sup>18</sup>

난 ... 모스크바종합대학에 유학생 시험을 통하여 유학갔는데, 수학부에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물리학부에서 한 명, 그리고 김책공대에서 한 명이 같이 갔다. 자연 과학 분야의 유학생 프로그램으로, 김일성대학서 후보준박사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었다.<sup>19</sup>

1989년 ... 북한 유학생 58명 중 8명이 독일로 가고 나머지는 소련으로 갔다. 우크라이나에는 동기생들이 9명 갔다. ... 같이 간 사람들은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민스크 등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공부했다.<sup>20</sup>

소련에서 공부한 유학생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이공계 유학생들의 경우, 북한 대학에서 교육받은 내용과 소련에서의 교육내용이 거의 동일했음을 뒤늦게 알았다. 북한은 유학생을 파견할 당시, 북한에서의 학년보다 1~2학년씩 낮추어 유학하는 대학에 입학하도록 했다. 이는 현지 언어를 익히고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유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충분히 소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난 4년여 기간 동안 모스크바대학의 준박사 반에서 공부했다. 여기에는 준박사반과 박사반이 있는데 준박사반 졸업하려면 4년간 공부해야 한다. ... 여기에서 북한에서 소련의 교육을 그대로 강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박사반에 들어갔지만, 처

<sup>18</sup>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2016.7.22. 인터뷰.

<sup>19</sup>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2016.7.14, 2016.9.3. 인터뷰.

<sup>20</sup> 김책공업대학 졸업, 2016.8.10. 인터뷰.

음에는 무조건 대학 학사 6학년 전공반 강의에 들어보낸다. 유학생들은 어디에서 왔건 상관없이 6학년 졸업시험을 통과해야만 준박사 반에서 공부할 자격을 준다. 내가 여기에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배운 것과 장과 제목이 똑같은데, 왜 이것을 또 배워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교과서의 실례까지 똑같은데 결국 북한의 수학교과서가 소련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미 다 아는 것이어서 지도교수를 졸라 겨우 이 과정을 생략하고, 6개월 앞당겨 준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sup>21</sup>

북한의 유학생은 세 부류인데. 첫 번째는 국가 돈으로 가는 사람으로, 이들은 철저히 실적제일주의로 선발해서 보내는 유학 형식이므로 국비 지원이고, 두 번째 유형은 외교관으로 나가는 부모를 따라 가는 유형으로 자비유학이며, 세 번째는 실습유학이다. 앞의 두 유형은 대학생 연령대에 가는 것이고, 실습유학은 세계적인 현장 감각을 갖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가는 거다. 이 사람들도 국가비용으로 간다.<sup>22</sup>

1980년대의 북한의 유학생정책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1950년대에 유학을 했던 원로 학자들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했다.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에서 재교육을 받음으로써 최신의 과학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의 학자들을 북한 내에 초빙하여 강의를 개설하는 등의 교류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1950년대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의 일부를 1985~1989년 사이에 6개월간 재교육을 위해 보냈다. 소련이 망하기 전에 좀 열어놨다가 망하니까 다시 닫아놓은 셈이다. 1950년대에 한 번 열고, 1980년대에 다시 한 번 열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다시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열었던 성과가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sup>21</sup>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2016.7.14. & 2016.9.3. 인터뷰.

<sup>22</sup> 김책공업대학 졸업, 2016.8.10. 인터뷰.

<sup>23</sup> 김책공업대학 졸업, 2016.8.10. 인터뷰.

표 3 북한의 국가별 과학기술 연수생 파견 현황 (단위: 명)

구분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소련	40	43	117	200	145
중국	50	50	50	57	80
동독	4	6	8	30	49
헝가리	-	-	-	17	11
불가리아	-	-	-	14	25
유고슬라비아	-	23	5	10	6
폴란드	-	-	-	6	35
루마니아	-	-	-	-	3
공산권 소계	94	122	180	334	354
일본	35	56	112	202	93
인도	-	-	15	18	3
파키스탄	-	-	-	4	-
필리핀	8	-	-	-	-
서독	4	21	10	15	37
프랑스	-	-	5	13	12
스웨덴	-	-	-	11	20
이탈리아	-	-	11	5	-
스위스	-	4	13	-	7
네덜란드	-	2	-	-	5
오지리	-	-	1	-	19
노르웨이	-	-	3	-	-
덴마크	-	-	-	-	20
서방권 합계	47	83	170	268	216
총합계	141	205	350	602	570

출처: 김형수(2015: 159).

1980년대에는 해외 과학서적들을 들여오도록 적극 장려했다. 1960년대 후반 유일사상체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정권 수립 이후 축적했던 외국의 과학기술 원서들을 대부분 없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의 서적 반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고, 이를 유학생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유학생들의 임무가 공부는 못해도 과학책을 비밀리에 많이 들여와라 이런 건데, 김

대에 있으면 과학원 사람들이 와서 책 보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중요한 책들은 과학원에도 있고, 김대에도 있도록 장려했다. 영어 잡지도 신청하여 볼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기초과학은 러시아 것을 받아들여 비교적 탄탄하다.

지금은 이전보다 소련물이 많이 빠지긴 하지만, 소련식 교육을 그대로 한다고 볼 수도 있다. 1999년경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러시아 잡지도 많이 들어오지 못한 반면, 중국과의 교류가 더 많아졌다. 소련에 유학 갔다온 사람들은 5년쯤 있다가 실습으로 다시 보내지기도 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왕래가 끊기고, 잡지도 많이 못 들어왔다.<sup>24</sup>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및 동유럽과의 연계가 약해지면서 최근에는 중국에 유학을 많이 보내고 있다. 2000년대에는 유학을 보내는 방식이 어려워지면서,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을 허용하여 외국의 교수들을 초빙하고, 이를 중요한 세계와의 소통창구로 삼고 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북한에서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첨단기술 흡수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 2. 소련 해체의 충격과 북한의 고립

1989년부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붕괴하면서, 북한은 기존의 연결망을 상실하고 고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소련의 수교, 10월 20일 한국과 중국의 무역사무소 개설 합의와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에 따라 북한의 정치적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북한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다”와 같은 논설을 발표했다(김정일, 1992a). 북한은 1992년 4월 9일 헌법 개정을 통해 1972년에 개정된 헌법 제1장 4조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구절을 삭제하고, 대신 3조에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구절을 추가했다(권성아, 2006). 그러나 국제적 질서와

<sup>24</sup>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2016.7.14, 2016.9.3. 인터뷰.



대외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김일성 사망이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하면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북한의 권력체제는 재편된다.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모방하면서 지식체제를 만들었으나, 1950년대 후반기의 제1차 희석화를 거쳐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을 계기로 제2차 희석화를 거치면서 북한의 독특한 모델을 만들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해체의 근본원인을 정치·사상교육의 약화와, 사회주의 확립을 위한 ‘주체’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김정일, 1992b: 428). 또한, 북한은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의 근본적 원인을 자본주의 풍조의 유입이라고 판단하여 자본주의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전면 차단한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몰락의 구체적 상황이 국내에 알려질 경우 벌어질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와 체제 이탈을 우려하여, 1989년 동유럽 유학생들을 대거 소환하는 한편, 1991년 소련이 해체하자 소련 유학생들 역시 전면 강제 소환했다.

끼예브에는 북한의 과학기술계 유학생은 적고, 인문사회계 유학생들은 많았어요. 독일 유학생들은 1989년 12월에 철수시켰고, 끼예브를 비롯한 소련 유학생들은 1990년 8월에 철수했어요. 소련 연방에 흩어져 있던 유학생들을 모두 모스크바로 집결시켜 총화하고 철수했죠.<sup>25</sup>

유학생들의 강제 소환 이후 이른바 군사대학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푸른제 군사아카데미’ 사건이 북한에서 발생했다. 소련의 군사대학에 유학하는 기간에 소련의 비밀첩보기관에 연루된 군사 유학생들이 강제 소환에 불만을 품고 북한의 권력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들을 제거한 대규모 숙청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유학생의 70%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했다고 전해진다.

푸른제 군사아카데미 유학생들은 모조리 죽었다. 고위장성도 연루되어 있으니. 이들은 결집력이 강하고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모조리 제거했다. 도망간 사람은 거의 없다. … 원자력 기구 탈퇴가 1993년 3월인데, 푸른제아카데미 사건은

<sup>25</sup> 김책공업대학 졸업, 2016.8.10. 인터뷰.

1992년도부터 시작했고, 1993년 10월에 대대적으로 검거되어, 1995년도에는 거의 종료되었다. 사회유학생들도 모두 조사대상이 되었다. 농담이라도 불경한 요소가 있으면 죄가 된다.<sup>26</sup>

푸른제(군사)아카데미 사건의 주모자는 작전부총참모장 홍계성으로 실제로 쿠데타를 준비했다. 김일성 죽기 전 1년 전에 일어났는데, 무능한 군사원로들을 제거하고, 김부자를 천황처럼 만들고 우리가 정치한다는 것으로, 1992년 11월에 하게 되었는데 미루다가 소련 아이들이 알려줘서 숙청당한 거다. 홍계성은 1986년도에 소련에 유학했다. 이 아카데미엔 장령도 있었다. 학부는 위관급이었고, 푸른제아카데미 유학생은 주로 작전재직반인데 그중 홍계성이 대좌로 제일 낮았다. 홍계성이 최현의 사위다. 홍계성은 1986년도에 가서 1989년도에 졸업하고 귀국하여 소장으로 작전국 부국장으로 임명되었다...<sup>27</sup>

소련 해체 이후 북한의 교육정책은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사상과 ‘소련물 빼기’ 작업을 더욱 강화했는데, 이는 대학 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북한 당국은 소련이 해체된 것을 북한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소련 사람들이 이전의) 훈장, 경장, 군복을 내다 파는 모습을 다 알려주고. 강연회 때마다 이를 알려주어요. 청년동맹원들이 마대에다 넣고, 당중앙위원회에다 보내고, 이처럼 망해가고 있는데, 이는 소련이 사상교양을 못하고 청년 중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전했어요.<sup>28</sup>

... 1988년도부터 사회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러시아는 완전히 몰락하고, 중국이 올라가는데 1987년부터 1989년 기간에 그런 교차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다. 그때 중국에서 평양배아링공장도 들어오고, 중국의 영향이 커지기 시작했다. 영어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1989년 제13차 청년학생축전이 기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 평양 외국어학원에 가보니까 1960~70년대는 영어반이 10명씩 두 개 반이었는데 1980년

<sup>26</sup> 김책공업대학 졸업, 2016.8.10. 인터뷰.

<sup>27</sup> 소련 유학생 출신, 2016.9.30. 인터뷰.

<sup>28</sup>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2016.7.4. 인터뷰.

대 후반에는 영어가 한 개 반이 더 늘고, 로어반은 더 줄어 있었다.<sup>29</sup>

이처럼 소련의 해체는 러시아어 교육의 약화와 소련에 대한 이념적 비판을 가져오면서 소련 모델의 약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에도 반영되어, 과학기술 연구에서 지배적으로 차지하던 소련 논문의 인용이 1990년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고, 일본, 중국, 영어권의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이춘근, 2002). 이는 소련 붕괴 이후 사상적인 측면뿐 아니라 과학 및 기술의 측면에서 소련 모델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축소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 V. 맺음말: 소련의 유산을 다시 생각하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광복 이후 약 10년간, 특히 1948년부터 1956년까지는 북한의 대학 및 과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체제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소련형 모델의 이식이었다. 이의 근거에는 2차대전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고양된 소련적 근대성에 대한 선망이 깔려 있었다. 6·25전쟁과 전후 복구에서도 소련의 지원이 절대적이었으므로 소련형 모델은 강화되었지만, 1956년 '8월 종파사건' 등 내부 정치적 갈등과 지도부 장악에 따른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1950년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소련의 영향력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문헌에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10년사』 등의 초기 문서에서는 소련 고문 및 교수진의 파견과 유학생 현황 등 소련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던 반면, 2005년 출판된 차용현과 서광웅의 『조선로동당 인테리정책의 빛나는 력사』에는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와는 달리 소련 고문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김일성이 “대학의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데서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본따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으나(차용현·서광웅, 2005: 123), 이것이 언제 말한 것인지 정

<sup>29</sup> 평양외국어대학 졸업, 2016.9.8. 인터뷰.

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모호하게 처리했음을 볼 수 있다.

호루시초프 시기에 이루어진 북한의 소련에 대한 거리두기는 정치사상과 문화적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대학 내 정치사상교육에서 소련에서 유입된 학자, 정치가, 사상사를 배제함으로써 소련식 교육의 내용이 희석화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음악, 미술, 언어 등 사회문화 전반으로 확장되어 대학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어 소련의 영향력은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1967년 5·25교시와 이에 따른 도서정리사업은 소련형 대학 모델의 희석화를 말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였다. 그럼에도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의 분리, 대학과 과학원의 분리와 같은 소련형 지식체제의 기본구조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과학기술을 배우려는 열망이 다시 소생했다. 이는 해외 유학생 파견의 증가와 북한 내 해외서적의 출판 재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북한의 대학 역시 변화하게 된다. 북한은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편성된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한 대내외적 정책을 펼쳤다. 소련 붕괴 후 북한은 소련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혈맹’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에 좀 더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파견하던 유학생 정책이 단절되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외교뿐 아니라 교육 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서의 소련형 대학 모델, 또는 소련형 고등교육 모델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본적인 틀이 해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첫째, 대학과 과학원, 사회과학원이 병존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 일반대학과 간부를 양성하는 특수대학, 근로자들을 위한 기능별 대학의 분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셋째, 대학 내부에 당 조직이 있고, 당이 대학 전체의 운영을 통제하는 구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학교와 생산현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학의 인적 구성에서 교직원과 학생의 ‘성분’에 따라 구성비율을 통제·제한하는 원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기는 했으나 이 역시 유지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내용에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맑스-레닌주의의 철학교육이 주체사상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것, 그리고 러시아어

교육이 영어교육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2009년 이후 북한은 대학의 발전에서 세계적인 동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 일류대학으로 키울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10년 평양의학대학, 평양농업대학, 사리원농업대학 등 북한 내 주요 단과대학을 김일성종합대학에 편입시킴으로써 학과구성을 종합화하며 김일성종합대학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리영철, 2015).<sup>30</sup> 또한, 2010년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설립 등을 통해 대학의 국제화와 국제사회와의 학문적 교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측면도 보인다. 북한의 교육당국자들은 세계 일류대학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대학과의 교류나 지원을 희망하고 있지만, 주체사상에 따른 학술 부문에서의 오랜 관행은 이런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 통일 이후의 동독 대학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역시 급속한 대학 개혁, 나아가 소련형 대학 모델의 원산지인 러시아조차 대학을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학제와 교육내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특히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한 러시아 및 주변국들의 2000년대 대학 개혁(김선, 2017), 그리고 북한의 2000년대 후반 대학의 세계화에 대한 의지의 표명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 또는 연결고리가 있을지는 향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학은 이런 흐름에 가장 뒤쳐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흐름에서 북한이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투고일: 2017년 5월 21일 | 심사일: 2017년 6월 3일 |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12일

<sup>30</sup> 이런 현상은 지방 도시에서도 확인된다. 2015년 혜산시에서도 여러 전문학교들을 대학에 편입시키는 조치가 있었다.

## 참고문헌

- 강호제. 2001. “북한 과학원과 현지 연구사업: 북한식 과학기술의 형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봉기 외. 1989. 『金日成의 비서실장 고봉기의 유서』. 천마.
- 과학원. 19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의 연혁(1953~1957)』. 과학원출판사.
- 권성아. 2006.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북한연구학회 편. 경인문화사.
- 김기석. 2001. 『一卵性 雙生兒의 탄생, 1946: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 교육과학사.
- 김동규. 1989. “소련 고등교육의 이념과 정책변화: 소련의 고등교육(1).” 『대학교육』 39, 46-54.
- 김동규. 1989. 『북한의 대학과 대학생』. 민족통일중앙협의회.
- 김동규. 1990. “북한 교육학의 성립 근거와 학교 교육의 전개 과정.” 김형찬 편.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 김동규·김형찬 편. 2000. 『북한 교육사』. 교육과학사.
- 김선. 2017. “구공산주의 국가들의 학제 통합 개혁이 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7(1), 145-169.
- 김선호. 1990. “고등 교육.” 『북한의 교육』. 김형찬 편. 을유문화사.
- 김용섭. 2005. 『남북 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지식산업사.
- 김응서. 2012.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주외교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 『세계정치』 16, 237-288.
- 김의석. 1997. “남북한 고등교육 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교육학논총』 17, 109-128.
- 김일성. 1953. “자체의 힘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자.” 『김일성저작집 8』.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일성. 1955.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8』.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일성. 1971. “교육 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김일성선집 48』.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일성. 1972.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과업.” 『김일성저작집 28』.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일성. 1972. “재일본조선인과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50』.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일성. 1973.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일성전집 53』,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일성. 1986.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금속공업을 다그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9』,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 1956a.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 1956b. 『(김일성종합대학 창립10주년기념) 논문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 1960. 『8.15 해방 15주년 기념 논문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정원. 1992. 『분단한국사』, 예진.
- 김정일. 1967.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정일. 1979.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갈데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선집 6』,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정일. 1984.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본보기 학교로 잘 꾸릴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2』,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2.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2.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형수. 2015. “북한의 유학생 정책.” 『북한의 대학: 역사, 현실, 전망』, 정근식 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리영철. 2015. “고등교육발전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위치와 역할.” 『고등교육의 발전과 전망』,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馬越徹, 한용진 옮김. 2001.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 대학 모델의 전파연구』, 교육과학사.
- 박원용. 1999. “원칙과 현실의 긴장: 소비에트 권력 최초 10년간(1918~28) 고등 교육기관의 계급주의적 전환에 나타난 제 문제.” 『러시아연구』 9(1), 215-248.
- 박원용. 2012. “‘계급성’에서 ‘전문가적 자질’로: 스탈린의 문화혁명기(1928~1932)에 나타난 고등교육 정책의 굴곡.” 『서양사연구』 46, 67-97.
- 박종효 편역. 2010a.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 선인.
- 박종효 편역. 2010b.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I』, 선인.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1946. “결정 제40호 <북조선에 종합대학을 설치할 데 관한 결정>.”

7월 8일.

- 사회과학원. 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사회과학출판사.
- 서대숙. 2000.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을유문화사.
- 서재진. 2003.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통일연구원.
- 서정목. 1992. “중앙아시아 해외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를 다녀와서.” 『새국어생활』 2(3), 206-218.
- 성혜량. 2000. 『등나무집』. 지식나라.
- 선즈화, 김동길 옮김. 2014. 『조선전쟁의 재탐구: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 선인.
- 선즈화, 김동길 옮김. 2017. 『최후의 천조: 모택동·김일성시대의 중국과 북한』. 선인.
- 스칼라피노·이정식. 1986.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돌베개.
- 신인철. 1987.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 신효숙. 1998. “해방 후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형성과 특징: 김일성 종합대학의 창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2), 195-224.
- 신효숙. 2005. “북한사회의 변화와 고등인력의 양성과 발전(1945~1960).”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북한연구학회, 8(2), 39-83.
- 안성호. 2015. “1967년 ‘5.25 교시’를 통한 북한의 역사왜곡연구.” 『사회과학연구』 32(2), 37-73.
- 연장렬. 1960. “우리 당 문예·정책의 정당성과 해방 후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발전의 특성.” 『8.15 해방 15주년 기념 논문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염인덕 편. 1980. 『북한전서: 1945~1980』. 극동문제연구소.
- 오경숙. 2004. “5.25교시와 유일사상체계확립: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32, 325-344.
- 윤여령. 2013. “북한 인테리 정책 연구: 해방 이후~1980년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태준. 1947. 『蘇聯紀行(소련기행)』. 조선문학동맹.
- 이춘근. 2002. “학술지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1990년대 과학기술 연구 동향.” 『현대북한연구』 5(2), 173-198.
- 전현수. 1995.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대 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343-377.
- 전현수. 2004. “한국현대사와 소련의 역할(1945~1948), 《쉬피꼬프일기》 연구.” 『북현사림』 27, 1-28.
- 정근식 편. 2017. 『북한의 대학: 역사, 현실, 전망』. 진인진.
- 조선중앙통신사. 1968. “당면한 당선전사업방향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



신사.

차용현·서광용. 2005. 『조선로동당 인텔리정책의 빛나는 역사』. 사회과학출판사.

황장엽. 1999. 『개인의 생명보다 소중한 민족의 생명』. 시대정신.

황장엽. 2006.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시대정신.

蔡美化·李梅花 编. 2015. 『高等教育的發展與前景』. 延边大学出版社.

Etrama, Emma, Anu Kõu, and Samir KC. 2014. “Early Transition Trends and Differences of Higher Education Attainment in the Former Soviet Unio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Finish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XLIX 2014*.

Kuraev, Alexey. 2014.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Russia: Collapse or Perpetuation of the Soviet System? A Historical and Conceptual Study.” Ph.D. Dissertation of Boston College.

Lankov, A.N. 2005.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McClelland, James C. 1980. “Diversification in Russian-Soviet Education.” Konrad H. Jarausch, ed. *The Transformation of Higher Learning 1860-193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Okorokov, A.V. 2008. *Sekretnye voiny Sovetskogo Soyuzu*. [Secret Wars of the Soviet Union]. Moscow: Yauza.

Timberlake, Charles E. 1980. “Higher Learning, the State, and the Professions in Russia.” Konrad H. Jarausch, ed. *The Transformation of Higher Learning 1860-193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Abstract**

## Transplantation and Dilution of the Soviet Type University Model in North Korea

Keunsik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ae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uji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istory of universities in North Korea started from 1946 when Kim Il Sung University was founded. However, this history has not been thoroughly studied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Soviet Union and its influenc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consolidation, and collapse of universities in North Korea that were based on the “soviet type university.” This research looks at a number of North Korean documents and i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 who graduated from North Korean universities.

North Korea started preparations to establish Kim Il Sung University right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Kim Il Sung University tried to show its “national” identity when it was founded in 1946 but it soon fully adopted the “soviet type university” model. As a result, Pyongyang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Pyongyang Medical College became independent in October 1948. The soviet type university model became more pronounced when the Academy of Sciences was founded. However, the adopted “soviet type university” model started to collapse under a number of political issues such as North Korea's internal political conflict in 1956 and the Sino-Soviet split in 1960s, and its collapse became more imminent when the Soviet Union was dissolved in the early 1990s.

**Keywords** | Soviet type university, Kim Il Sung University, Academy of Sciences, Academy of Social Sciences